□ 한국 애니메이션 현실 진단

코리아메이션 추락하는가

한 영 리
〈스튜디오 '마루'회원〉

90년대 초반에 들어와 '인어공주', '라이온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상상을 초월한 극장 수익을 올리자,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화와 동화작업의 하청을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라도 자본만 투입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사실 TV에서 방영된 바 있는 '심슨'이나 '스머프'등의 동화작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대기업의 자동차 1년 수출액을 훨씬 웃도는 수익을 거둔 디즈니사의 성공은 국내 기업들의 구미를 끌었고, 게임이나 캐릭터 산업등의 수익까지 생각하면 결코 외면해 버릴 수 없는 금광이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6, 70년대 호황을 누리던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는 부푼 희망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이처럼 갑작스레 쏟아진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과 격려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잇단 제작을 고무시켰다. 94년도 겨울 개봉된 '블루시걸'을 선두로 '붉은 매', '아마게돈', '돌아온 영웅 홍길동', '헝그리 베스트 5' 등의 작품이 기존의 어린이 만화영화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기획, 제작된 것이다.

이 작품들로 인해 90년대 초반의 희망만이 가득하던 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의 숨김도 없이 다 드러나 버린 것이다.

성인관객을 타겟으로 제작된 '블루시걸'은 시나리오상의 문제와 엉성한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으로 작품성이나 흥행면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출판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한 '붉은매'와 '아마게돈'은 어느정도 완성도를 갖추기는 했으나 디즈니의 유려한 영상과 탄탄한 시나리오를 이미 맛본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하고 말았다.

대체 '토이 스토리'나 최근에 개봉된 '월레스 & 그로밋'등 찬사를 한몸에 받는 외국 애니메이션과 국내 애니메이션이 그토록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실사영화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식상하도록 들어 온 자본의 문제로 요약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전문성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애니메이션계를 잠시 살펴보자.

미국은 영화사 초기부터 실사영화와 함께 꾸준히 산업으로서의 애니메이션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대표되는 이름으로 디즈니사가 버티고 있다. 또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개발로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든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토이 스토리'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초창기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수상으로 기반을 다진 단편들로부터 시작해 전후, 애니메이션 관련법이 제정되고 산업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TV애니메이션(일본이 세계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이 매년 2천여편씩 제작되고 있으며, 오리지날 비디오 애니메이션(OVA)의 활발한 제작, 유통도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받치는 힘이 되고 있다.

눈에 드러나게 거대산업화의 길을 걸어온 미국과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레스 & 그로밋'을 만들어낸 영국이나, 작년 SICAF에서 선보인 캐나다 같은 국가들 역시 타국가의 기세에 밀리지 않을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사 직전에 이른 영국의 애니메이션은 80년대 초에 신설된 채널 4 방송사의 후원으로 실험적인 독립 영화 제작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 캐나다 국립 영화 위원회(NFBC)에서는 1940년대부터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나선 결과 프레데릭 백, 노만 맥클래런 등의 거장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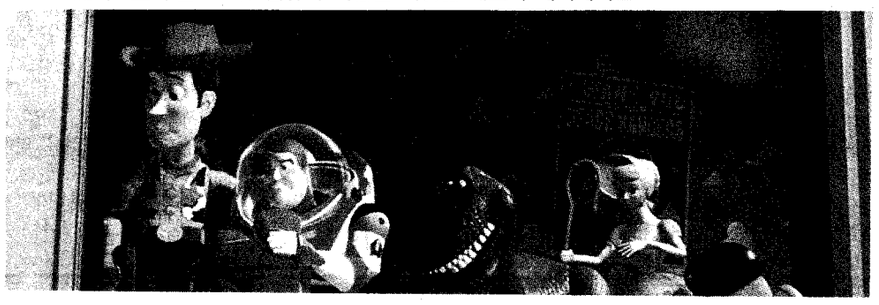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창작이건, 오랜 시간에 걸친 진지한 노력과 탐구가 오늘날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간 버려뒀던 연장을 꺼내 집을 짓겠다고 덤비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67년의 '홍길동'(아쉽게도 필름은 유실되었다)과 74년 '로봇태권 V'등 국내에도 애니메이션의 뿌리가 내려질 즈음, 밀려드는 외국 TV 애니메이션에 자리를 빼앗긴 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애쓰고 있다. 숙련된 애니메이터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기획에서부터 연출,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작업경험이 아직은 미숙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덕분에 외국의 도움을 비는 합작품도 나오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완성시켜야 하는 TV애니메이션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우리 풍토에서, 완성도를 기해야 하는 장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실로 커다란 모험이었던 만큼 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시간안에 승부를 내려는 조급함보다는 보다 멀리를 내다보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작 중인 제이콤의 '망치'와 박재동 화백의 '오돌또기'에서는 보다 다듬어진 작품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블루시걸', '아마게돈', '붉은 매'……희망만이 가득하던 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의 숨김도 없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반게리온'
▼'토이스토리'는 100% 컴퓨터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 애미메니션



영화평 □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다큐멘터리적 흑백영화

변 인 식
〈영화평론가〉

80년대 운동권 학생 출신이었던 김응수 감독의 데뷔작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는 몇가지 이유로 하여 시선을 끌었다. 우선 독립영화=저예산 영화라는 단순 개념을 깨고, 인디영화로서의 개성적 특성을 강하게 내세운 점이 눈에 띄었다. 감독의 개성적 특성은 당연히 다큐멘터리적, 시적, 극적인 형식미를 내세워 낯설지만 작가주의적 출발을 선언하였다.

다음은 공간적 배경을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설정했으면서도 시간적 배경은 80년에서 90년대로 옮겨 오는 한 세대의 통과의례를 영화의 소재로 잡은 것이다.

루이 알튀세르의 자서전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에서 '미래'를 '시간'으로 대체한 제목이 암시하듯, 영화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에 있었던 아픈 기억때문에 괴로워하는 운동권 출신들의 후일담으로 엮어진다.

김응수 감독이 제작, 각본, 감독 등 1인 3역을 한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는 한국 최초의 러시아 올 로케와 현지 스탭의 참여라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국제성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성 배우를 배제했다. 이름이 알려진 배우라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노동 현장의 여성으로 출연했던 김선재가 유일했을 정도였다. 나머지 출연진들은 학업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러시아에

80년대 운동권출신의 후일담

거주하는 30대 젊은이들로서 그들은 20대를 80년대의 서울에서 보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 90분중 '과거'와 '상처'를 상징하는 흑백 88분과 '현재'와 '희망'을 암시하는 칼라 2분의 설정도 인상적이다. 새해를 이틀 앞둔 모스크바 근교의 한별장. 이곳에 여덟명의 한국 사람들이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모인다.

그들은 십년 전 80년대의 서울에서 같이 대학시절을 보냈으며 지금은 유학생, 외교관, 주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한 시대의 희생양이 되버린 '진호'의 죽음에 대하여 크고 작은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기'는 진호에 죽음에 대한 강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던 끝에 권총으로 자살한다.

'원래'는 진호의 애인이였으나 현재는 애인의 친구인 중기를 사랑하며 입바른 충고도 서슴치 않는다. 중기의 아웃사이더로서의 방황도 '기웅'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치유한다.

현재 현실에 타협하여 출세지향쪽을 선택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으로 있는 '성준'과 아직도 트로츠키를 흠모하는 과격한 이념의 소유자인 기웅은 상반된 축의 삶을 살다가 '좌천'과 '죽음'의 길을 각각 택한다.

이들 여덟명의 인물중 유일한 이방인이 파견 기술자인 '완구'이다. 그는 성실하면서도 낙천적이지만 그만의 쓰라린 과거를 가슴에 묻어둔체, 달관된 눈초리로 이들의 삶을 응시하고 있다. 그 시점이 작가의 객관적인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중기마져 논문을 끝낸후 서울행 티켓을 끊었으나 '선재'만은 텅빈 모스크바에 홀로 남는다. 옛 애인이었던 진호의 사진을 보며 오열하는 선재. 영화의 끝이다.

이 영화로 김응수 감독은 거의 불모지였던 독립영화가 설 자리를 확보하는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내세운 80년대 운동권 세대의 방황과 좌절이 극적긴장감으로 승화되거나 증폭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한 세대의 고통을 모래시계처럼 한정된 용기 속에 담아놓은 소우주의 창조로 자족하는 한계를 보였다.

문화단신

제20회 월계가요제

- 예선 :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 장소 : 광운대 도서관 영화상영실
- 대상 : 경인지역 대학 재학생
- 부문 : 솔로, 듀엣, 중창, 그룹
- 참가곡 : 순수 창작곡
- 지참물 : 악보2매, 학생증

맨하탄 일번지

- 지하실 방에서 일어난 두 사내의 이야기
- 연극을 통해 우스꽝스럽고 슬프면서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 윤영선(연출) 장두이, 전수환 외(출연)
- 성좌 소극장
- 오는 20일까지
- ☎ 745-1214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⑥ 우리 역사속의 다리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다리는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와 연화교, 칠보교이다. 다리라는 구조물을 경계로 하여 천상의 불국과 지상의 속세를 연결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쫓기는 몸이 된 고구려의 주몽이 압록강 엄호수에 이르렀을 때 자라와 물고기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 다리는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과 신천지의 입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다리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선죽교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압록강의 단교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집약시켜 보여주는 다리로 일제시대 압제와 가난을 피해 만주로 향하던 유이민이 건넜던 다리이다. 1950년 한국전쟁시에는 압록강 철교와 한강다리들이 폭파되기도 했다. 휴전선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학교에는 가령교(嘉鈴橋)와 황궁교(皇穹橋)(1961.6), 선금교(仙琴橋)(1967.11), 화성교(和成橋)(1977.12)등 4개의 다리가 있다. 온실을 지나 가정대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황궁교에는 '하늘로 뚫린 언덕길로 오르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바로 이 다리앞에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민주주의 혁명으로 우리 사회에 민주화를 촉진시킨 역사적 가교인 4.19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탑이 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희의 구성원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4월을 맞이하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21세기로 건너가는 '평화와 민주의 다리'를 건설해 가야 할 것이다.

▲4·19기념탑에서 바라본 황궁교

남·여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문 및 인원 (총 1,020명)
- 이 공 계(710명) :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수학, 물리학
- 인문사회계 (310명) : 전학과

2. 응시자격
- 정규 4년제 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97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97년 2월 졸업자 (97년 7월말 이전 전역 예정장교 포함)
- 1969년 1월1일 (석사 : 1967년 1월1일)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그룹 소정양식) 1통
- 성적증명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시 제출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1997년 4월7일(월)~ 4월12일(토)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 교부처 (지방은 현대자동차써비스 각 지점)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비원옆) 현대인재개발위원회 ····· 02)746-3232~4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0-1 ····· 051)466-4403
대구 서구 원대2동 69 ····· 053)353-4370~1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 062)368-3211
대전 동구 성남동 503-2 ····· 042)627-9070~1
전주 완산구 경원동 3가 73-1 ····· 0652)85-5001~2
청주 흥덕구 비하동 323 ····· 0431)232-3281~3
춘천 효자1동 685 ····· 0361)52-4706~8
강릉 옥천동 159 ····· 0391)43-3390~3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위원회 (비원옆 현대주택문화센타: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6. 기타
- 육·해·공군장교 출신자는 우대합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 다음날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97년 7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 신체장애를 이유로 전형 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746-3232~4)에 문의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비스: http://www.hyundai.net
(교부접수 기간중 지원서 On-Line 접수 및 채용정보 제공)

●**모집회사** :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정공,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상선, 현대산업개발, 현대종합목재, 고려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기산업, 현대증권, 금강개발산업, 현대알루미늄공업, 현대우주항공, 현대할부금융, 현대미디어시스템, 현대물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자 : 1997년 5월 10일(토)
- ARS : 02)700-1913 ■ 인터넷 : http://www.hyundai.net

現代